

사스와 에이즈, 그리고 한국 언론

전염병들은 인간에게 처음 다가올 때에는 '괴질'이란 이름표를 달고있다.
전염병이 돌 때마다 마스크들은 전염병의 원인이나 확산방지 보다는 오로지 특종에만 매달려 왔다.



안중주
한겨레신문 보건복지전문
기자

에이즈, 곧 후천성면역결핍증후군이 20세기 마지막에 지구를 휩쓴 전염병이라면 사스(SARS; Severe Acute Respiratory Syndrome), 곧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은 21세기 시작부터 우리를 괴롭히는 전염병이다. 이 두 전염병은 서로 다른 점도 있지만 닮은 점도 많다. 이 두 전염병을 대하는 인간의 모습과 언론, 특히 한국 언론의 보도 태도는 너무나 닮았다.

사스와 에이즈는 모두 바이러스 전염병이다. 두 바이러스 모두 DNA(디옥시리보핵산)가 아닌 RNA(리보핵산)를 유전자로 가지고 있다. 그래서 두 바이러스 모두 유전자 변이가 심하다.

에이즈를 일으키는 에이즈 바이러스, 곧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IV)는 아프리카에서 서식하는 녹색원숭이에서 유래된 것으로 보고 있다. 사스를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는 아직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중국 광둥 지역에서 야생동물로부터 인간으로 옮겨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공포로 다가오는 전염병들

전염병들은 인간에게 처음 다가올 때에는 '괴질'이란 이름표를 달고 온다. 이 이름표

를 달고 있을 때 대부분의 인간은 극도의 공포를 느낀다. 이는 나중에 정확한 원인이 밝혀지고 전파경로가 밝혀진 뒤에도 오랫동안 인간에게 심리적인 공포를 준다.

에이즈도 1980년대 초반과 중반 인간에게 극심한 공포를 주었다. '모기가 전파시킨다' '가벼운 키스로도 걸린다'는 등 온갖 비과학적인 소문이 퍼져나갔다. 이 때문에 에이즈에 걸린 사람이 응급 상황에 놓여있더라도 이를 내팽개치는 일까지 생겨났다.

한국인 최초의 에이즈 환자가 외국에서 한국에 이송돼 서울 시내 한 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때 심지어는 담당 간호사가 입원실에 들어가지 않으려 소동을 벌이기도 했다. 1980년대 말 국립공주결핵병원에 에이즈 환자 진료 전담병동을 만들려고 했을 때에는 인근 지역 주민들이 격렬한 시위를 벌이는 바람에 무산되기도 했다.

사스도 마찬가지다. '바퀴벌레가 옮긴다', '공기전파가 된다' 등의 소문이 퍼져나갔다. 중국에서 귀국했다고 하면 아예 만나지를 않으려는 일이 벌어졌다. 이런 과장된 두려움 때문에 중국을 다녀온 장관이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하지 못하는 일도 벌어졌다.

사스 환자 또는 의심환자를 진료할 병원이나 이들 환자와 접촉한 사람을 일정 기간 동안 격리시키기 위한 전담병원 지정과 격리 시설 지정 등이 인근 주민들의 반대로 무산되기도 했다. 이들은 자신들의 자녀가 사스에 감염될 가능성이 있다는 허황된 주장을 그 이유로 내세웠다.

언론도 10~20년전 에이즈 보도를 할 때 보였던 태도를 사스 보도 때에도 그대로 이어갔다. 20년 가까운 세월이 지났음에도 언론의 전염병 보도 태도가 별로 나이지 않았다. 사스의 원인과 감염 경로가 거의 드러났음에도 여전히 괴질로 국민들을 공포에 떨게 했다.

정작 관심이 필요할 때 언론은 시들

'사스'라는 이름으로 바뀐 뒤에도 사스의 확산이나 예방홍보보다는 최초의 환자가 누구냐에 초점을 맞추었다. 그것은 마치 마녀사냥과 같았다. 약간이라도 의심스러운 환자가 발견되기만 하면 그는 거의 '사스환자'가 됐다. 1985년에도 에이즈 환자가 아닌 사람을 에이즈 환자인 것처럼 허일보가 보도해 범석을 면 일이 있었다.

그리고 막상 국립보건원이 최초의 사스 추정환자 발생을 공식발표한 뒤 이어 2명의 추정환자가 더 발생하고

10여명의 의심환자가 잇따라 나오자 언론들의 보도는 시들해졌다.

현재 에이즈 감염인이 2천명이 넘고 지금도 확산일로를 걷고 있지만 언론의 관심을 별로 없다. 의심환자가 여럿 나오고 추정환자도 잇따라 나오면 그 상황이 더 중요한데도 최초의 추정환자 또는 의심환자에 대한 관심에 견줘 반의 반도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

한국 언론의 냄비 근성도 있지만 전염병 보도를 어떤 식으로 해야 하는지를 잘 모르는 것도 한몫을 한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 70년대 이후 많은 전염병이 돌았고 그 때마다 매스컴들은 앞다퉁 이를 다루어왔다. 하지만 보도는 우리의 방역체계나 방역 능력에 대한 검증이나 확산을 막기 위한 대국민홍보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특종에만 눈이 멀어 사소한 것에만 매달려왔다. 숲은 보지 않으려 하고 나무만 가지고 활가왕부하는 꼴이다.

우리 언론은 앞으로 또 사스가 유행하거나 사스와 유사한 위험성을 갖는 새로운 전염병들이 우리나라에서 유행하거나 유행할 조짐을 보일 때 과거의 모습에서 벗어나 참언론의 모습을 보일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우리 사회에서 70년대 이후 많은 전염병이 돌았고 그 때마다 매스컴들은 앞다퉁 이를 다루어왔다. 하지만 보도는 우리의 방역체계나 방역 능력에 대한 검증이나 확산을 막기 위한 대국민홍보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특종에만 눈이 멀어 사소한 것에만 매달려 왔다.

